

오리 수급 동향과 전망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7>

<3.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3.1.1. 사육 동향

- 2014/15년 HPAI 발생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까지 종오리 입식이 증가하여 2016년 3월부터는 육용오리 마릿수가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오리고기 공급 과잉이 지속되어 2016년 3월부터 종오리 감축 사업을 통한 오리고기 수급조절이 실시되었다.
- 종오리 감축 사업(2016년 3~5월 2차례 시행)으로 총 사육 마릿수는 2016년 6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2015년(967만 9천 마리)보다 4.3% 감소한 925만 8천 마리였다. 이 중 종오리는 2015년(85만 6천 마리)보다 14.6% 감소한 73만 1천 마리이며, 육용오리는 2015년(882만 3천 마리)보다 3.3% 감소한 852만 8천 마리였다. 2016년 11월

16일 HP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12월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할것으로 추정된다.

- 오리 사육 가구수(2016년 9월 기준)는 오리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2015년보다 17.1% 감소한 639가구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사육 가구수의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1만 3,724마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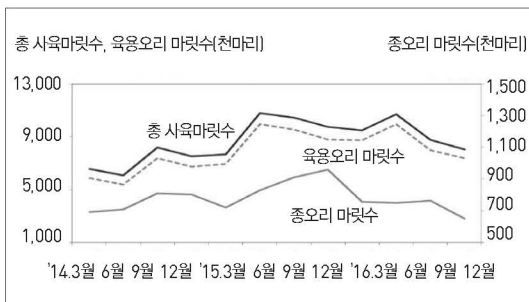
3.1.2. 오리고기 수급 동향

- 2016년 오리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2015년 5월~2016년 4월 종오리 입식 마릿수는 HPAI의 영향으로 입식이 줄었던 전년 동기보다 48.6%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오리 입식 마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오리 감축 사업과 HPAI 발생으로 오리고기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16년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는 2015년(6,528만 마리)보다 2.2% 감소한 6,384만 마리였다. 2016년 총 도압 마릿수는 7,004만 마리로 2015년(7,105만 마리)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6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5년(11만 8,328톤)보다 감소한 11만 6,636톤으로 추정된다.

- 2016년 오리고기 수입량은 3,355톤으로 2015년(3,130톤)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오리 사육 마릿수



자료: 통계청

오리고기 총 공급량 감소로 1인당 소비량은 2015년보다 감소한 2.3kg으로 추정된다.

▷ 오리고기 수급 동향

단위 : 톤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p) |
|-------------|----|---------|---------|---------|---------|---------|---------|
| 공급 | 생산 | 154,514 | 169,568 | 158,303 | 106,450 | 118,328 | 116,636 |
| | 수입 | 4,270 | 3,661 | 2,942 | 2,949 | 3,130 | 3,355 |
| | 계 | 158,784 | 173,229 | 161,245 | 109,399 | 121,458 | 119,991 |
| 수요 | 소비 | 158,764 | 173,229 | 160,948 | 109,399 | 121,458 | 119,991 |
| | 수출 | 20 | 0 | 297 | 0 | 0 | 0 |
| | 계 | 158,784 | 173,229 | 161,245 | 109,399 | 121,458 | 119,991 |
| 1인당 소비량(kg) | | 3.1 | 3.4 | 3.2 | 2.2 | 2.4 | 2.3 |

1) 수입은 정육·지육, 열처리의 합임.

2) 2016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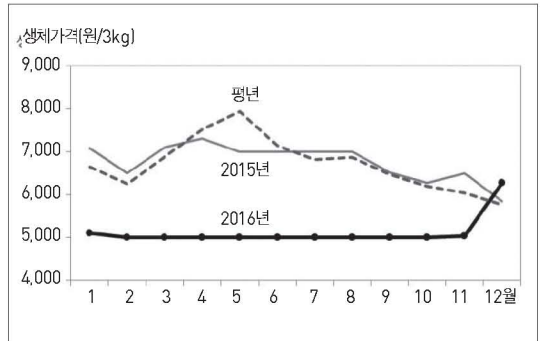
3.1.3. 오리 산지가격 동향

● 2013년 중오리 조기 도태와 종란 폐기로 사육 규모가 축소되어 오리고기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산지가격은 2012년 대비 9.5% 상승한 3kg당 6,311원이었다. 2014년에는 HPAI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13년 대비 26.4% 상승한 7,974원이었다.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5년 오리 산지가격은 2014년 대비 15.2% 하락한 6,760원이었다.

● 2015년 하반기 이후 육용오리 입식 증가로 인한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와 지속적인 소비 부진으로 2016년 11월까지 오리고기 산지가격은 5,000원 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6년 11월 16일 HPAI 발생으로 오리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12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월보다 24.8%(전년보다 7.6%) 상승한 6,281원으로 나타났다.

▷ 오리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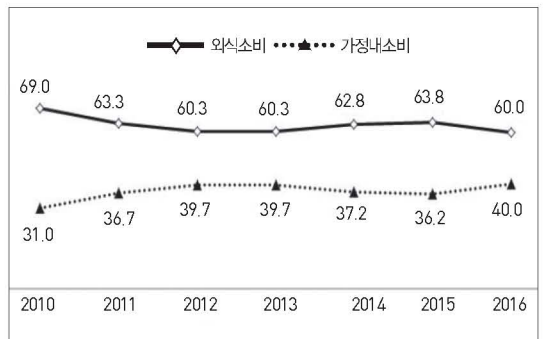
자료: 한국오리협회

3.1.4. 오리고기 소비 동향

● 소비자들은 오리고기 소비 시 가정내 소비(40.0%)보다 외식 소비(60.0%)를 더 선호하였다. 2012년 이후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 외식소비 비중이 2015년 대비 감소하고 가정내 소비는 증가하였다.

●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가 부진한 이유로는 ‘요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리하기에 어려워서’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되는 오리고기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이 24.5%, ‘오리고기 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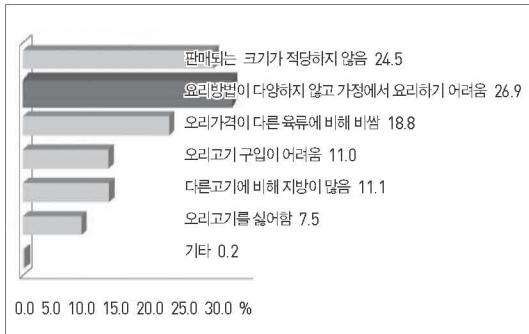
▷ 오리 소비 형태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쌈'이 18.8%, '다른 고기에 비해 지방이 많음'이 11.1%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제품 크기의 다양화와 레시피에 대한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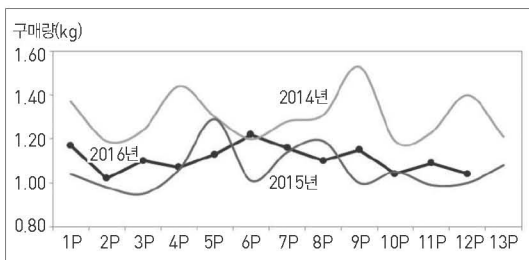
▷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 부진 원인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2016년 가구당 4주 평균 오리고기 구매액은 kg당 14,000원으로 2015년(14,925원)보다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오리고기 구매량은 2015년(1.06kg)보다 4.5% 증가한 1.11kg으로 조사되었다. 오리고기의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가구당 평균 오리 구매량(가정내 소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오리고기의 외식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구당 오리고기 평균 구매량 변화



2016년은 12월 4일까지임.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3.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종오리와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종오리 감축 사업과 최근 HPAI 발생으로 2016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감소한 11만 7천 톤이었다.

● 2016년 11월 HPAI 발생으로 현재(2017년 1월 11일)까지 오리는 총 245만 마리(사육의 28.0%)가 매몰 처분되었다. 이 중 종오리가 32만 8천 마리(42.9%), 육용오리 212만 2천 수(26.5%)가 매몰 처분되었다.

▷ 7차 HPAI 오리 매몰 처분 마릿수(2017.1.11.기준)

| | 육용오리 | 종오리 |
|-----------------------|------|------|
| 매몰처분마릿수 (만마리) | 212 | 33 |
| 사육대비 (2016.9.기준,%) | 26.5 | 42.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현재 HPAI의 발생은 소강상태이나 매몰 처분 마릿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매몰 처분 마릿수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수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 (기본안) 종오리 매몰 처분 마릿수 32만 8천 마리(현 수준, 사육의 43%)
- (시나리오) 종오리 매몰 처분 마릿수 38만 마리(사육의 50%)

● 종오리가 32만 8천 마리(현 수준, 사육의 43%) 매몰 처분되었을 때, 2017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6년보다 19.9% 감소한 742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오리고기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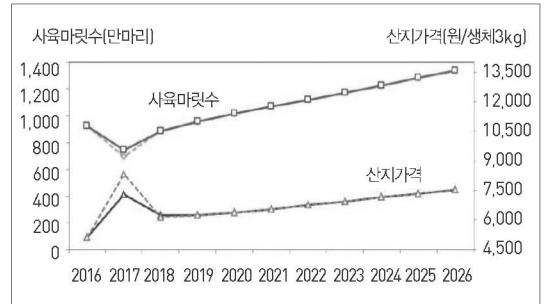
은 2016년 대비 16.7% 감소한 9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7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6년보다 42.5% 상승한 7,295원(생체 3kg)으로 전망된다.

- 중오리가 38만 마리(사육의 50%) 매몰 처분되었을 때, 2017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6년보다 24.9% 감소한 695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6년 대비 20.9% 감소한 9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7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6년보다 63.0% 상승한 8,341원으로 전망된다.

- 2017년 이후 오리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년 이내에 HPAI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1,070만 마리, 2026년 1,337만 마리로 전망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2021년 13만 4,323 톤, 2026년 16만 2,930톤으로 예상된다.

-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7년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1년 2.6kg, 2026년 3.2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리 산지가격은 2021년 6,549원, 2026년 7,528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리 사육 마릿수 및 가격 전망



실선은 기본안, 점선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KASMO 2016)

▷ 오리고기 수급 전망

| 구분 | 단위 | 2016 | 전망 | | | |
|---------|----------|---------|-------------|--------------|---------|---------|
| | | | 2017 기본안 | 2017 시나리오 | 2021 | 2026 |
| 사육 마릿수 | 만마리 | 926 | 742 | 695 | 1,070 | 1,337 |
| 생산 | 톤 | 116,636 | 98,985 | 93,962 | 134,323 | 162,930 |
| 수입 | 톤 | 3,355 | 4,787 | 6,120 | 3,704 | 4,293 |
| 1인당 소비량 | kg | 2.3 | 2.0 | 1.9 | 2.6 | 3.2 |
| 산지 가격 | 원/생체 3kg | 5,118 | 7,295 | 8,341 | 6,549 | 7,528 |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 제품의 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KASMO 2016)

